



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(대장 강희용)는 지난 8일 밤 노형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방범순찰을 실시했다.

이번 합동순찰은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주민의 왕래가 많은 제주도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일대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,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했다. 특히 무단횡단,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.

노형지구대는 향후 노형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역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.